

정읍시, 내장저수지·호텔 부지 공원구역 해제 총력

공원계획 변경안 심의 앞두고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일부 해제
유진섭 시장 환경부 찾아 건의

정읍시가 내장저수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부지의 국립공원 구역 해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정읍시에 따르면 유진섭 시장이 최근 환경

부를 찾아, 주민들의 생존권 회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장산국립공원 구역 일부 해체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전달하고 구역 해제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내장저수지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부지의 국립공원 구역 해체에 대한 노력은 2019년부터 이어져 왔다. 애초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주도로 2019년에서 2020년 말까지 국립공원 3차 공원계획 변경이 있을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결정·고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내장산국립공원의 공원계획 변경 안건은 지난 3월에 총괄협의체 심의를 마쳤고 마지막 단계인 공원위원회 심의만 남은 상태다. 시는 내장저수지 일부 해제안과 내장산관광호텔 예정부지 해제안 등 2건을 정책적으로 선정했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속에 안건 모두를 공원위원회에 상정시켰다.

안건이 공원위원회를 통과하면 정읍시민의 오랜 염원인 내장저수지의 친생태적 이용이 가능해

져 사계절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장산관광호텔 또한 품격있는 숙박 공간으로 조성돼 내장산이 스키는 관광지 아닌 머물며 즐기는 관광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시민의 염원을 담아 지역의 발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낼 내장저수지와 내장산관광호텔 부지의 공원구역 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익산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희망키움 통장·청년저축 신규 가입자 120명 모집

익산시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을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고 2일 밝혔다.

익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본인 저축액에 일정 비율의 정부 지원금을 더해 3년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사업은 희망키움통장(I·II),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으로 진행되며 올해 신규 가입자 120명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일부 지원자는 3월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I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가구소득에 비해 월 66만3000원(최대 281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II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만15세~39세의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5세~39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중도에 사정이 있어 통장 유지가 힘든 경우에는 6개월간 통장 적립 중지 신청도 가능하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정읍 임산물 체험단지 다도 체험 정읍시는 내장산문화관광 인근에 임산물 체험단지를 조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체험단지를 찾은 학생들이 '차향 문화관'에서 다도 체험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순창군, 5월 한달간 중부세·개인지방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운영

순창군이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납부대상자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고,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국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 채움 신고·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있다.

신고·납부서를 수령한 사업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에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단 소규모 사업자 아닌 신고납부대상자는 전자신고로 홈택스(국세청 사이트)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 사이트)로 자동 연계돼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도움창구'를 순창군청 1층 세정전산실과 남원세무서 1층 민원상담창구에 설치한다.

이 창구에서는 만65세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신고도 지원한다. 그 외 신고납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모바일과 PC등을 통한 전자신고·납부를 권고할 계획이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고창군 도시재생 주민제안 17일까지 공모

고창군이 주민 주도 도시재생 참여 모델 발굴을 위한 '2021 고창군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고창군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는 고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 지역(고창읍 등 10곳)에 대해 생활환경개선·경제·복지·주거·문화·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주민이 제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팀당 최대 400만원으로, 심사를 통해 총 2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신청자격은 고창군에 생활기반(거주, 직장, 학교 등)을 둔 주민 또는 모임, 단체다. 고창군 지역 재생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생, 도시재생 관련 교육 수료생, 해당 지역 내 생활기반을 둔 주민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17일까지 고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e-메일(lets-gochoang@naver.com)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로(070-5001-5607)문의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주민이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제안한 사업을 실행에 옮겨보는 본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사업이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하고,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됐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2024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새만금 동서도로~북항 개발용지(스마트수변도시)~관광-레저용지를 잇는 20.7km 길이의 4~6차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는 9191억원에 달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내부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이 시행되면 내부 개발용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돼 개발에 속도가 붙고 민간투자도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남원의 옛모습 증강현실로 만난다

남원다움관에 실감콘텐츠 구축

남원시가 증강현실(AR) 기기를 이용해 남원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나선다.

2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남원다움관의 실감콘텐츠 구축을 위해 응모한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공모사업 '2021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돼 국비 2억원 등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남원의 기억을 기록·보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해 즐길 수 있도록 남원다움관에 증강현실 메타

버스 공간인 '남원잇-다'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남원잇-다'에는 자체 제작한 파노라마 증강현실 기기를 이용해 지금은 사라진 남원의 옛모습을 관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국가예산 확보는 부족한 예산을 발품으로 획득한 좋은 사례"라며 "남원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 대표관광지인 광한루원, 남원예촌 인근의 '남원다움관'은 남원의 근현대 기록전시 및 각종 체험 콘텐츠를 갖추고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남원의 시공간을 이어주는 '남원잇-다'는 자체 제작하는 파노라마 증강현실(AR) 기기를 통해 지금은 사라진 남원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